

# 영어권 독자에 맞는 상품 개발을

## 우리책 수출하기 ②

조승훈  
을지서적 외서부 사장

영어권 시장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관련 서적을 분석해보면서 그것이 제시하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

**한국전쟁** : 한국 관련서적 중에서 현재 가장 많이 출판된 주제는 '한국전쟁'이다. 종합도서목록(BIP, Books in Print)에 수록되어 있는 분야를 세밀하게 살펴보면, 전쟁 일반이 86종, 육지전 22종, 공중전 11종, 해전 2종, 개인체험 22종, 포로생활 4종, 참전부대의 역사 10종과 기타 등이다. 이들 책은 몇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거의 중복 없이 다양한 시각에서 다뤘다는 점이다. 영어권 독자가 요구하는 다양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둘째, 대형 종합출판사, 학술도서 출판사, 대학교 출판부, 연구기관 등이 고루 출판하고 있다. 어느 특정 출판사가 이 주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의 우수 출판사와 학계에서 한국전쟁은 꼭 다루어야 할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셋째, 한국 출판사에서 이 주제를 다룬 책은 하나도 없고 한국 저자의 저서는 단 5종이다. 그 중 자로나 연구 가치가 있는 것은 1992년 브래세이즈(Brasseys)에서 출판한 백선엽 장군의 《From Pusan to Panmunjom》 단 한권 뿐이다.

**언어관련서** : 한국전쟁 다음으로 많이 출판된 분야는 언어관련서. 85종이 나와 있다. 그 중 24종은 한림출판사에서 나왔고 나머지는 영어권 출판사에서 출간됐다. 정



우리 책에 대한 영어권 시장의 수요가 많은 만큼 가능성도 크다.

작 한국에서 교재로 많이 쓰이는 책들, 예를 들어 연세·고려대학교의 출판물은 미국의 ISBN을 배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BIP에 게재되지도 않고 영어권 시장에 공급되지도 않는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분야** : 한국전쟁과 언어 이외의 분야별 출판물을 살펴보면 경제 84종, 정치 73종, 역사 53종, 외교 45종, 사회 43종,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33종, 일반 32종, 종교 17종 등이다. 팔목할 만한 것은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분야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개척 분야** : 시 소설 평론을 포함한 기타는 미개척 분야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빈약하며, 한국 출판사의 서적은 전무한 상태이다.

위의 관찰에서 몇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영어권 출판사들은 한국에 관련된 여러 분야의 주제를 고루 다루고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 출판계에서 영어권 시장은 전혀 미개척 분야라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출판계의 영어권 진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인 가.

### 한국관련 서적의 시장성

한국의 국제정치상의 위상(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국가), 경제활동(자동차·전자제품의 수출), 스포츠 분야에서의 활약(올림픽, 2002년 월드컵), 1백여만을 헤아

리는 교포의 숫자 등은 영어권에서 우리에게 대한 관심과 정보의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출판계는 그 수요에 전혀 반응이 없다. 워낙 미개척 분야라 시장의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은 BIP에 열거된 중국과 일본에 관한 영문서적의 규모이다.

중국관련 서적은 우리의 5배, 일본관련서는 우리의 4배이다. 영어권 시장 자체의 규모를 감안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 시장이 아닐 수 없다. 책의 내용이나 질을 살펴보면 우리와의 차이는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중국이나 일본관련서에는 한국전쟁과 같은 집중적으로 많은 출판물을 만들어낸 주제는 없지만, 모든 분야에 걸쳐 중국과 일본 출판사의 활동은 대단히 활발하다.

게다가 중국과 일본 작가들의 영문판 소설이 일본 중국관련 서적이 아닌 영어권의 일반소설로 간주되어 위의 집계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와의 차이는 훨씬 더 크다. 한국관련 출판물의 숫자가 적은 것이 우리에게 대한 관심도가 중국·일본에 비해서 낮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영어권 시장에 우리나라 출판계가 공급할 수 있는 책이 반드시 한국관련서여야만 한다고 그 범위를 축소시킬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의 책들도 이미 미국 독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소재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떻게 미국시장에 적합한 상품으로 책을 만들 것이냐에 있다. ❖

# 쉬!!!

프로는 말이 없다  
다만 읽고서 느낄 뿐이다.

남들과 똑같이 살면서 더 나은 삶을 기대하지 말라.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투자하라.  
지금부터 시작이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새롭게 설계해 보라.  
여성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 신달자** 그녀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까지의 이야기. 첫사랑 때문에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던 얘기 등을 진솔하게 그리고 있다.
- 임경숙** 배짱과 용기 하나로 낯설은 이국 땅에서 불꽃의 노력으로 행위예술가가 되기까지, 7시간 동안 뜨거운 키스를 해주던 남자와 그 동안의 독신 생활을 과감히 청산하고, 결혼하게된 얘기 등
- 채시라** 우연한 기회에 학생잡지 표지모델을 계기로, 현재 최고의 스타로, 또 프로라는 말이 잘 어울리게 자리를 굳히기까지, 어떠한 자세로 일해 왔으며, 채시라의 대인관계,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어린시절, 재수시절의 어려웠던 이야기 등.
- 최정자** 시골에서 초등학교 때 정기적으로 보는 극장 관람에서 우연히 지젤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아, 어린 소녀의 가슴을 뛰게했던 그 후, 오직 무용가로써 한 길을 걸어왔고, 지금은 뿔마루 프로무용단을 출범시켜, 지젤을 긴장시킬만한 무용가로 성공.
- 추미애** 세탁소집 둘째 딸로 태어나, 15대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또 판사로 재직시 시국사범에 대해 위로 부터 압력을 받아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라고 말한 투철한 프로정신의 멋진 변호사, 새정치 국민회의 여성 초대 부대변인, 고시시절 시 한수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사랑 얘기 등
- 하선정** 6.25의 잿더미 속에서 그야말로 맨 손 하나로 한국 최초의 요리학원을 설립, 50여년의 한길을 걸어 왔고, 현재 하선정 종합식품의 회장이 되기까지.....